

# “하루만에 달라진 나이... 느낌이 새롭네요”

## 만 나이 통일 첫 날 이모저모

31→29살 앞자리 바뀌어 '반색' 연령별 정책·보험 등 문의 빗발고 3 “졸업해도 10대 여전” 어색 “혼란스럽지만 큰 변화 없을 것”

“30대였는데 다시 20대가 됐다고 하니 느낌이 새롭네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 나이가 연 나이(매년 1월1일마다 동시에 한 살을 더하는 셈법)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됐다.

하루만에 나이가 어려졌다는 사실에 연령별로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출생년도가 3이나 4로 끝나는 이들은 이날부터 나이 앞자리가 바뀌자 반기는 분위기였다.

1993년생인 유모(29)씨는 “이전 나이로 치면 31살이지만 여태까지 30대라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는데 만 나이가 적용돼 다시 20대로 돌아와서 편하게 나이를 말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해부터는 민방위인데 혹시 나이가 어려져서 예비군을 더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31살에서 29살이 된 유기씨는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별생각 없었지만, 막상 앞자리가 바뀌니 꿈 많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고 활짝 웃었다.

1-2살이 어려진만큼 과거보다 좀 더 도전정신을 발휘하겠다는 이도 있었다.

직장인 김연지(23)씨는 “사회초년생이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다시 23살이 됐다”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무엇이든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지자 기뻐하는 분위기였다.

어린 아들을 둔 천주우(35)씨는 “아이가 흔히 말하는 ‘미운 4살’에서 3살이 됐다. ‘천천히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참에 소원이 이뤄진 기분이라 신난다”며 아들 손을 꼭 잡았다.

반대로 빨리 어른이 되고싶은 아이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위기였다.

박민준(10)군은 “빨리 멋진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려져서 너무 아쉽다”고 말하자, 등갓길을 함께 하던 서의재(9)군은 “민준이랑 동갑이었는데, 오늘부로 나보다 나이가 많아졌다. ‘그럼,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임운해(18)양은 “고3을 연상하면 19살이 자연스레 떠오르는데, 18살이라 하니 어색하다. 20살에 대한 설렘이 컸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10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으로 각 업계에서 진행하는 연령별 정책, 할인, 보험 등 다양한 문의나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기렌트로 차를 모는 박모(25)씨는 “9월에 만 26세가 되면서 차량보험료가 줄어드는데 혹시나 이번에 연령정책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더 내게 될까봐 바로 보

험사에 전화로 물어봤다”며 “운전자보험은 원래부터 만 나이 적용이라 다행으로 생각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정경운(32)씨는 ‘만 나이’ 시행에 관해 “과거와 동일하게 2004년생 이전 출생자면 술·담배 판매가 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주변 친구들은 ‘술·담배를 구매하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어떻게 하나’ 묻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50~60대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정년이나 퇴직 시기가 이들의 뜨거운 감자였다.

공무직에 종사하는 김모(57)씨는 “정년이 7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퇴직이 이뤄진 게 아닌가 담당자에게 여쭙보기도 했다. 원래 정년은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해 그대로라고 들었다”며 “은행 등에서도 이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해왔어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앞으로 모든 국민이 매년 1월1일 한 살이 늘어나는 기존 나이 기준이 아닌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각자 한 살씩 늘게 된다. 법률상으로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표시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

김혜인 기자·전해연 인턴기자



제2회 광주·전남 기업 수출 페스티벌 회장품 등 광주·전남 기업 관계자들이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광주·전남 기업 수출 페스티벌에서 태국, 베트남 등 광주·전남TP 해외 Biz센터 관계자와 1:1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김신혜 재심 ‘수면제 탄 양주’ 쟁점

###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복용 진위 파악 등 요구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에서 ‘양주에 탄 수면제’ 복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 요구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김씨의 두번째 공판준비기

일에 박준영 변호사는 “약물을 양주와 함께 먹게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희석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 측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로 제시됐던 ‘양주에 탄 수면제’ 복용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한 증인과 법정 검증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없었다”

면서 “경찰에서 약사의 진술은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부검감정서에 위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통상 부검의는 자신들이 집도한 부검 사진을 갖고 있어 더 좋은 화질의 원본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

로 부검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제약회사 약사 등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일부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영상물에는 아버지가 치통으로 장기간 진통제와 항생제를 복용했다는 동생과 약사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의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17일이다.

앞서 김씨는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2000년 8월 무기징역을 선고·2001년 3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헌변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사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